

潘 유엔총장에 '삼족오 직인'



전각 명인 정병례씨 제작... 높이 18.5cm 크기

전각 명인인 고암 정병례씨가 반기문 차기 유엔 사무총장에게 전달할 '삼족오(三足烏) 직인'을 들여보내고 있다. 직인은 직육면체로 가로·세로 7cm에 높이 18.5cm의 크기다. 직인에는 포효하듯 하늘을 향해 고개를 들고 힘찬 날갯짓을 하는 삼족오와 이글거리는 태양을 배경으로 'Ban Ki-moon Secretary-General The United Nations(유엔 사무총장 반기문)'라는 문구가 선명하다. 옆면 한 곳에는 "三足烏는 전설 속의 새다. 태양 속에 살며 하늘



과 땅을 연결하는 신의 메신저로 세계 평화와 안녕을 안겨줄 행운의 나라를 편다"란 글귀를 넣어져 있다. /연합뉴스

군의문사위가 밝힌 과거 군내 가혹행위 실태

구타·잔반먹기 사역 내무반 성추행 까지...

대통령 직속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군의문사위)가 12일 밝힌 의문사 2건의 진상을 통해 과거 교도대 및 군내 폭력적 가혹행위의 실태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군의문사위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1980년대 강원도 제1야전군 사령부 소속 야전부대에서 복무중 사망한 김모(당시 20세, 경기) 하사와 1996년 강원도 모 교도대에서 자살한 박모(당시 21, 서울) 이교(이등병에 해당)가 그동안 알려진 '단순 사망'과는 달리 군내 폭력에 의해 사망했다고 발표했다. 군의문사위에 따르면 박 이교는 전환복부의 일환으로 강원도 모 교

도소 경비교도대에 배치받은 첫날부터 선임대원들로부터 가혹행위와 구타에 시달렸다. 전입 첫날 신고식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취침점호 후 불이 꺼진 내무반에서 누구인지도 모르는 선임대원들로부터 욕설과 함께 머리 등을 구타당했다. '먹기 사역'도 있었다. 끼니 때마다 세 명이 먹어야 할 분량의 식사를 선임대원들의 감제에 의해 '남기지 않고 깨끗이' 먹어 치워야 했던 것. 남성들끼리만 생활하는 내무반에서 선임 대원들로부터 성추행도 당했다. 박 이교는 이 같은 구타와 가혹

행위를 견디다 못해 교도대 전입 나흘만인 1996년 10월22일 투신 자살로 생을 마감했다. 그러나 교도대측은 박 이교가 내성적 성격에 얼굴 피부병에 의한 우울증으로 자살한 것으로 처리했다. 강원도 제1야전군사령부 소속 야전부대에서 복무중 사망한 김 하사도 부대 회식 후 창고에 불려가 선임인 A하사로부터 주먹으로 가슴을 가격당해 쓰러져 사망했다. 그러나 당시 군 당국은 김 하사가 부대 회식 후 잠을 자던 중 구토로 인해 기도가 막혀 질식사했다고 발표했다. /연합뉴스

"제이유 공직자 가족 '무혐의' 될 듯"

검찰, '특혜·로비 없었다' 잠정 결론

제이유그룹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이 제이유그룹 측과 부적절한 돈거래를 한 의혹을 받고 있는 고위 공직자 및 가족에 대해 사법처리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12일 알려졌다. 검찰은 최근 한나라당과 시민단체 등에서 제기한 제이유그룹과 공정거래위원회의 유착 의혹과 관련, 고발장 등이 접수될 경우 수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제이유그룹 또는 제이유그룹 관계자와 부적절한 금전 거래를 한 의혹을 받고 있는 공직자 또는 가족은 이재순 청와대 사정비서관의 가족 6명과 서울중앙지검 K차장검사의 누나와 매형, 박모 차관감 등이다. 검찰은 제이유그룹의 사업자로 활동한 이 비서관 가족 6명이 총 13억8천만원을 투자해 11억8천만원의 수

당을 받은 데 대해 "전산 조작을 통해 조직적인 특혜 수당을 제공한 혐의는 없었다"고 잠정 결론지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이재순 비서관이 보내온 오피스텔 문제 등에 관한 추가 해명서를 검토한 뒤 최종 판단을 내릴 것"이라며 "제이유 재경팀장과 수주 팀장 등을 불러 조사한 결과 전산상 매출 조작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해 사실상 무혐의 처분을 내렸음을 시사했다. /연합뉴스

현장과 시각

손해배상 청구 철회 안된다



김주정 사회1부 차장

한미 FTA 반대 시위로 400여 장의 유리창이 깨지고, 7명의 공무원이 다친 광주시청 주변에 또 다시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광주전남 농민연대, 광주전남 희망연대, 민주노총 광주전남지역본부 등 지난달 22일 폭력시위를 주도했던 단체들이 12일 오후 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손해 배상 청구를 철회하라"며 "소송을 철회하지 않으면 쌀, 무, 배추 등 농산물로 배상금을 대신하는 현물상환 투쟁을 벌이겠다"고 나선 때문이다. 오는 15일부터는 쌀·배추 등 현물 약적시위를 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들은 회견에서 "민중의 삶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는 것을 막고자 하는 의로운 투쟁이 한미 FTA 반대 투쟁"이라며 "투쟁의 본질이 이러함에도 박광태 시장은 대회 진행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나타난 물리적 충돌을 빌미로 지역민들을 테러리스트로 상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시청사 파손은 한미 FTA 반대라는 '의로운 투쟁'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나타난 물리적 충돌의 결과이지 폭력은 아니므로, 손해배상할 수 없다는 것이다. '폭력'(FTA협상 반대)이 정당하다고 보기 때문에, '과정'(폭력시위)이 어떻게 상관하지 않겠다는 뜻으로도 이해된다.

하지만, 광주시의 입장은 단호하다. 민주노총 등 3개 단체, 40명의 시위 주동자들을 대상으로 한 2억여원의 손해배상 청구는 시민 재산을 파괴한 행위에 대한 당연한 조치라는 논리로 맞서고 있다. 폭력 시위 뒷날 박광태 시장을 비롯한 8명의 기관·단체장, 지역원로 등이 참석한 연석회의에서 ▲시민의 재산과 안전을 지키고 ▲광주에서 과격·폭력 시위를 추방하기 위해서 관련자를 형사고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기로 한 결정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른 의사 표시가 없으면 손해는 금전으로 배상한다'는 법규(민법 제394조)에 따라 현물배상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강경한 자세다.

광주시 관계자들은 "이 같은 대응은 전에 없이 강력한 시민들의 요구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한다. 수많은 시민들이 청사 파손 직후 광주시청을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를 걸어 반드시 관련자를 처벌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라고 요청했다고 한다.

박광태 시장은 이달 초 간부회의에서 "5·18민주화 운동 때도 보호했던 시청을 파괴한 사람들은 민주·평화도시라는 광주의 자긍심을 짓밟았다. 이 사람들을 광주시민이라고 할 수 없다"는 말로 이런 분위기를 대변했다. 이제 광주에서 불법 폭력시위를 무기로 어떤 것도 달성할 수 없게 해야 한다는 시민들의 메시지를 지켜나가겠다는 각오다. 그것은 바로 손해배상 청구를 철회해서는 안 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jjnews@kwangju.co.kr

Shin Yang Park Hotel

한가위

조용하고 아늑한 분위기!

- 연말연시모임
- 상견례
- 직통세미나룸(200명) 및 회의실
- 볼링장
- 고척연

TEL. 062)234-5815, 234-1115

12인승 차량모임

MISCOS

탄소 섬유난방비닥제 출시!!

탄소 섬유난방비닥제 특징

- 안전성
- 환경성
- 경제성
- 편리성

Blue III

문의 02)522-0117

Cell Banking

셀뱅킹은, 건강하게 자신의 세포를 보존해오다가 질병 발생시 치료에 사용하는 1:1 맞춤치료기 시작입니다.

신속하게 상담문의

한국과학기술원생명공학연구원

문의 02)577-3475